

고통과 기억: 식민지근대를 횡단하는 섹슈얼리티

: 『김약국의 딸들』을 중심으로

박숙자*

차례

1. 근대의 비극
2. 섹슈얼리티와 근대의 분열
3. 히스테리에서 주이상스로
4. 남성적 근대의 공백

〈국문초록〉

『김약국의 딸들』은 구한말에서 식민지로 이어지는 시대의 격랑 속에서 김약국 집안의 몰락을 재현한다. 소설의 공간적 배경은 항구 도시 ‘통영’으로 전근대/근대, 식민/제국, 봉건/자본 등 과도기의 모순과 변화를 응축시킨 토포스이다. 김약국 집안에 도래한 사회적 위기는 조선이 경험한 근대의 비극인 동시에 트라우마이다.

소설은 가문의 몰락 원인을 ‘일본/제국’으로 한정하지 않으며 오히려 식민지/자본/근대의 가치들이 경합, 충돌할 때 이를 해결하는 내적 구조가 무엇인지 묻는다. 이를테면 ‘검은 연기’로 상징된 ‘외세’의 위력을 통영 사람들은 ‘대원군/민비’ 간의 대립으로 치환시켜 해소하려고 하는데, 김약국 가문도 마찬가지다. 가문의 위기를 해결하고 존속하는 방법으로 성을 억압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예컨대 소설의 첫 장면에서 김봉룡은 ‘노란 머리카락’으로 표상되는 이질성의 기표를 성의 문란으로 생각하며 남성의 실존적 위기로 해석해서 폭력적으로 대응해서 비극을 낳는데, 이 비극

* 경기대학교 융합교양대학 조교수

은 다시한번 김약국(김성수)대에 이르러 반복된다. 딸들의 성과 사랑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가문의 몰락이 바로 그것이다. 이를테면 첫째 딸 용숙은 남성 경제에 대한 편입해 자본 증식을 도모하고자 하지만 위험한 여성으로 처리되고, 둘째 딸 용란은 전근대/가부장제/기독교 등의 의미 체계를 통해 성이 억압된다. 넷째 딸 용옥은 가부장제의 여성 규범에 순종적이지만, 결국 이로 인해 비극적 죽음을 맞이한다. 『김약국의 딸들』은 역사의 구조 변동 속에서 성의 억압에 근거한 가문의 존속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김약국 가문은 더 이상 그와 같은 방식으로 유지될 수 없다. 가문의 몰락은 비극이지만, 전적으로 애도되지는 않는다. 근대/식민/가부장이 공모한 남성적 근대의 몰락이기 때문이다. 이 소설은 김약국이 죽음을 맞이하고, 용빈과 용혜가 집을 떠나면서, 김약국 집에는 미치광이 용란만 남게 된다. 텅빈 기호로 남겨진 용란은 텍스트의 공백이다. 이 공백은 김약국 가문에 남겨진 상징계적 질서의 공백이자 여성적 쾌락의 기입이다. 비극이지만, 슬프지 않은 이유이다.

핵심어 : 고통, 기억, 섹슈얼리티, 식민지근대, 비극, 히스테리, 주이상스 가부장제, 구한말, 근대의 분열.

1. 근대의 비극

1960년대 소설사의 한 흐름으로 근대를 성찰하는 소설의 등장을 들 수 있다. 1950년대까지 체험 위주의 파편화된 기억을 통해 역사를 재현하거나, 식민지 시기 발간된 역사소설을 통해 역사를 소비하는 방식이 풍미했다면, 1960년대 역사 재현은 ‘소환’된다고 볼 정도로 현재적 요구와 긴밀하게 호응하며 전개된다.¹⁾ 우리에게 근대는 무엇이었고, 그 역사를 어떻게 기억할

1) 4.19 이후 ‘ 역사를 소환’한다고 볼 정도로 식민과 해방, 근대와 전쟁 등에 대한 사유를 촉발시켜 내고 있다. 이는 전후문학과 차별되는 지점으로 1950년 풍미했던

것인지 하는 질문이 본격화된 것이다. 이는 세계사의 보편적 감각 속에서 식민지근대의 삶을 총체적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으로 볼 만한데 예를 들어 이병주가 학병세대를 중심으로 식민과 식민이후로 조명하거나, 유주현이 대중적인 방식으로 근대 역사를 실록으로 기록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박경리 역시 우리에게 근대가 무엇이었고, 그 역사를 어떻게 기억해야 하는지 묻는다. 『김약국의 딸들』은 이 물음의 출발 지점에 서 있다.

『김약국의 딸들』은 박경리가 근대의 삶을 재구성하는 첫 번째 시도로 『토지』의 전사를 이룬다.²⁾ 이 소설은 1860년대부터 1930년대까지 통영을 배경으로 김약국 가문의 몰락을 담아내는데, 김봉룡과 김봉제 형제로 시작해서 김약국의 다섯 딸들로 이어지는 시대의 격랑 속에서 개개인들이 맞이하는 삶의 파탄을 그려낸다. 집안의 몰락은 2세대에 걸쳐 이루어진다. 첫번째는 김봉룡의 아내 숙정이 비상을 먹고 죽은 직후 ‘도깨비집’으로 회자되며 멸족에 가까운 폐가 상태로 전락하는 1세대의 이야기, 그리고 김봉룡의 아들인 김성수(김약국)가 가업을 이어받아 살아가지만 가세가 기울어지는 과정에서 맞이하는 인물들의 죽음을 그려낸 것이 두 번째 비극이다. 외견상 두가지 비극이 반복적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대물림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상당수의 기존 논의들은 비극의 원인을 밝히기보다 ‘비극’의 재현에 초점을 맞춰 비극적 현실을 조망했다.³⁾ ‘운명은

역사소설, 역사영화와도 차별화되는 지점이다(서은주, 『소환되는 역사와 혁명의 기억』, 『상허학보』 30. 상허학회, 2010. 135~170쪽).

2) 『김약국의 딸들』은 신문연재를 거치지 않은 채, 1962년 을유문화사에서 출판되었다. 이 글에서는 1993년 남남출판사 본을 참고했으며, 인용 페이지도 이 책에 준한다.

3) 이 소설의 기존 논의는 ‘샤머니즘’, ‘운명’, ‘주술적 세계’에 관한 논의와 ‘역사상’, ‘사실주의적 세계관’ 등의 논의로 크게 양분되어 있다. 우선 ‘샤머니즘’, ‘운명’ 등에 집중하는 논의는 ‘비상먹은 자손’ 운운하는 주술이 단단하게 믿을 체계로 내면에 자리잡는 과정에 집중하는데, 이런 측면에 집중한 논의로 한점돌, 황정현 등을 들 수 있다. 한점돌은 기본 서사구조가 샤머니즘적 기원에 의한 비극적 몰락이라고 진단하며, 황정현은 주술성과 원형적 심상에 좀더 주목한다. 그러나 이 논의들 역시 소설의 한 축에 자리잡고 있는 역사적 배경에 주목하는데, 김은경은 운명론적 세계관과 사실주의적 세계관이 혼재되는 양상에, 최은영은 봉건과 근대 공간의 전이와 공존 등에 집중한다. 오혜진은 전근대와 근대의 여성상이 교차되는 양상에

미리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다⁴⁾는 식의 논의도 마찬가지다. 비극의 원인으로 지목된 샤머니즘적 세계관이 비극을 조형해내는 텍스트의 역동으로 지적되어 온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분석은 비극의 원인을 신비화할 우려가 적지 않다. 샤머니즘의 징후와 양상이 인물들의 삶을 관통하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는 전근대의 질서가 삶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언술 일 뿐 주제를 실현하는 데까지 미치지 못하는 못한다. 김약국 가문에 도래하고 있는 비극은 한 가문의 불운이 아니라 구한말에서 1930년대까지 이어지는 사회역사적 변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패러다임의 결과이다. 때문에 비극은 식민/제국, 조선/일본, 봉건/근대, 주술/과학 등의 문제를 복합적으로 가로지르며 사유해야 한다. 샤머니즘으로 봉합할 수도, 봉건적인 제도로 관리될 수도 없는, 식민지근대의 모순에 따르는 비극이기 때문이다.

주목하며 용빈이 윤리적 주체로 각성되는 과정을 분석한다. 아울러 한영현은 가족사를 역사성과 결합시켜 역사와 그 안에서 살아가는 인물들의 삶을 거시적 차원에서 조망하는 특징을 지닌다고 언급한다. 이밖에도 조운아는 박경리 소설에 보편적으로 깔려있는 원죄의식에 주목하며 폭력희생자들의 내면을 분석하고, 유수연은 비극에 집중하며 시간의 정체로 인한 비극의 반복에 집중한다. 그러나 여성들의 삶 자체에 주목하는 논의나, 여성들의 섹슈얼리티에 주목하는 논의는 부재한 상황이다.(각주는 인용 순서대로, 한점돌, 『박경리의 『김약국의 딸들』과 샤머니즘』, 『현대문학이론연구』 41권, 현대문학이론학회, 2010, 5~24쪽, 황정현, 『『김약국의 딸들』의 설화적 성격 연구』, 『현대문학의 연구』 6, 한국문학연구학회, 1996, 361~387쪽, 김은경, 『『김약국의 딸들』과 영화 『김약국의 딸들』의 비교 고찰』 48권, 한국비교문학회, 2009, 157~182쪽, 최은영, 『박경리의 『김약국의 딸들』에 나타난 장소 연구』, 『현대문학이론연구』 51권, 현대문학이론학회, 2014, 319~346쪽, 오혜진, 『전근대와 근대의 교차적 여성상에 관해 - 박경리의 『김약국의 딸들』, 『시장과 전장』 『토지』를 중심으로』, 『국어어문』 47, 국제어문학회, 2009, 323~352쪽, 한영현, 『박경리 소설의 문학적 상상력과 영화적 변용 - 영화 『김약국의 딸들』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33권, 한국여성문학학회, 2014, 331~359쪽, 조운아, 『박경리 소설에 나타난 폭력 희생자들의 원죄의식』, 『인문학연구』 41,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1, 137~168쪽, 유수연, 『『김약국의 딸들』에 나타난 시간과 공간의 상관성 연구』, 『국어문학』 63, 국어문학회, 2016, 257~281쪽.)

4) 전수자, 『박경리 소설의 비극성』, 『語文論集』 3집, 민족어문학회, 1964, 187쪽.

이 소설은 한 가문의 이야기로 시작하지만, 가족-국가가 연동하며 근대 역사 전체로 나아간다. 그리고 그 중심에 섹슈얼리티(성)의 문제를 놓는다. 섹슈얼리티 억압은 개인 간의 사랑에서부터 가문의 유지에 이르기까지 복합적으로 연결된다. 이 억압은 양반-하인으로 이루어진 봉건주의의 잔재에서부터, 남성-여성 간의 차별을 기반으로 한 근대 질서에 이르기까지 감정, 신체를 규율하며 관통한다. 가문을 유지 존속시키고 계급, 자본을 관리하기 위해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단속하는 것, 비극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 『김약국의 딸들』의 비극은 식민/근대/자본의 변화 속에서 경제적, 정치적 영향을 통해 촉발되지만, 여성의 섹슈얼리티가 감정과 신체를 분열시키며 텍스트 전체를 교란하는 힘에 의해서도 야기된다.

2. 섹슈얼리티와 근대의 분열

2.1. '외부'를 다스리는 방법

『김약국의 딸들』의 서두는 비극의 원인이 무엇인지 상징적으로 제시한다. 우선, 김봉제, 김봉룡 형제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하는데, 두 형제는 성격이나 외모부터 대조적이며, 그 묘사 역시 흥미롭다. '선비 같은 성품의 형과는 달리' 봉룡이의 눈은 광기가 번득이며 난폭하기도 한데, 그가 이런 성격을 갖게 된 이유는 막내 아들로 자라난 이유도 있지만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조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다는 특성도 반영되어 있다. 그뿐 아니라 '머리털이 노란' 것도 이유라면 이유가 될 수 있겠는데, 한 친구가 이를 두고 '양놈의 피'가 섞인 것이 아니냐고 농을 걸었다가 반죽음이 될 만큼 얻어 맞은 일이 있다. 봉룡의 특징을 요약하고 있는 이 단락은, 인물에 대한 설명과 사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외모, 기질, 출생 등으로 난폭한 성격을 설명하고 있으며 그 성격으로 일어난

사건이 제시되어 있다.

봉룡은 점잖은 선비 같은 성품의 형과는 달리, 몸이 건강하고 눈에는 광기가 번득이는 혈기 왕성한 젊은이였다. 그는 선조에 대한 자부심에서 몹시 오만불손하였고 막내아들로서 귀엽게 자란 탓인지 누구든 자기의 의사를 거역하는 것을 광적으로 싫어하였다. 그러나 성격상의 결함은 그를 난폭자로 만들었다. 얼굴은 잘생긴 편이다. 외모로 봐서는 능히 한두령감이었다. 그러나 머리털이 노란 것이 큰 흠이었다. 한번은 어느 친구가 그의 노란 머리털을 보고 양놈의 피가 섞이지 않았느냐고 농을 걸었다고 반죽음이 될 만큼 얻어맞은 일이 있었다.(18쪽)

결국 봉룡의 난폭함이 드러난 사건은 ‘머리가 노랗다’는 지적에 따른 것인데, 이는 ‘선조에 대한 자부심’과 연동해서 이질성을 혐오하는 행동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소설에서 ‘노란 머리카락’은 봉룡만의 신체적 특징이 아니라 몇몇 인물들에게서 나타나는 이질성의 징후이다. 김약국이 사모하던 사촌누나 연순도 몸이 병약한데 머리가 노랗고, 연순과 닮은 용혜역시나 머리가 노랗다. ‘노란 머리카락’은 가문 안에 내재된 외부성과 이질성의 흔적이다. 그런데 봉룡은 폭력적인 방식으로 그 흔적을 지운다. 바로 이 부분에서 봉룡의 특성이 드러난다. 그는 ‘노란 머리카락’을 순혈주의를 더럽히는 징후로 읽어내면서 여성의 성을 단속하는 것으로 해결하고자 한다. 그래서 어느 날 봉룡의 아내 숙정을 찾아 가메골에서 한 남자가 찾아오자, 봉룡은 이 가메골 도령을 끝까지 색출하고자 한다. 봉룡은 그 도령에 대한 광분으로 아내를 폭력적으로 다스리고, 이 과정에서 아내 숙정은 비상을 먹고 죽게 된다.⁵⁾ 가메골 도령의 등장을 불륜으로

5) 이 작품에서 ‘비상 먹은 자손’의 주술은 스토리 층위에서 인물들의 신념을 드러내는 기제로 사용된다. 인물들은 이 주술로 사건과 사고의 연원을 이해하고 있으며, 실제로 비극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주술을 ‘운명’으로 생각하도록 유도한다. 그러나 이는 전근대/근대 세계가 분열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조선인들의 의식체계가 스토

오해한 봉룡이 초래한 비극적 사건이다. 이는 소설 서두에 묘사된 성격 묘사와 그대로 조응한다. 봉룡의 난폭함은 외부성의 흔적을 지우는 과정에서 드러나며, 그 과정에서 (반)죽음의 비극이 나타난다. 머리가 노랗다/양놈의 피/외부 손님 등이 유사하게 변주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는 김봉룡 집안만의 특징은 아니다. 당대 조선인들의 감정구조도 이와 비슷하게 나타난다. 이를테면 ‘외세’에 대한 반응 역시 그러하다. 통영 사람들은 ‘통영’이라는 항구 도시의 특성상 ‘검은 연기’를 뿜어대는 큰 배의 등장을 시각적으로 먼저 접하게 된다. 그런데 이들은 ‘외세’로 상징되는 배를 ‘양놈의 배’라고 하면서 ‘팡팡 쏘면 맥도 못 쓴다’는 정도로 대응한다.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지 못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대응 역시 ‘팡팡 쏘다’는 식의 폭력적 방어로 일관한다.⁶⁾ 이러한 인식은 ‘대원군 시절에는 어림이나 있었나 얼씬이나 해? 아암 얼씬도 못했고 말고, 중구난방이지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하는 법이니라’처럼 ‘대원군/민비’로 전치되면서 ‘남/녀’ 간의 의미대립으로 정리된다. 사회적 위기를 성별대립 정도로 요약해서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다. 이는 김봉룡이 이웃 마을의 나그네를 폭력적으로 제거하려고 한 것과 유비를 이룬다.

“양놈의 배라 안카나 우리나라에 쳐들어온다카이”

“팬찮다. 팬찮다. 가만 있거라 내 총 안 있다. 단박에 이렇게 팡! 팡! 쏘면 맥도 못 쓴다”

리층위에서 재현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 텍스트 층위에서 주제 실현을 하는 의미 체계로 이해하는 것은 곤란하다.

- 6) 최은영은 ‘장소감’에 근거해 ‘실존적 내부성’과 ‘객관적 외부성’으로 나누어 ‘외부성’을 차용하는데 이는 본 논문에서 쓰고 있는 ‘외부성’과 다른 개념이다. 최은영은 애드워드 랠프의 『장소와 장소상실』을 인용하며 ‘장소에 대해 의도적으로 냉정한 태도를 취하는 것’(338쪽)으로 ‘외부성’을 말한다. 예를 들어 용숙과 용빈은 통영 외부에 머물면서 ‘집’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는데, 최은영은 이를 외부성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쓰는 ‘외부성’은 단지 공간적 구분이 아니다. ‘외세’, ‘이웃 마을 나그네’ 등으로 텍스트 내에서 반복, 변주되는 기표들의 특징을 이르는 표현으로 근대화에 따른 사회적 위기가 ‘외부’에 있다고 보는 사유를 반영한 것이다.

(…)

“나라 꼴 조오타. 기가막히게. 대원군 시절에는 어림이나 있었나 얼씬이 나 해? 아암 얼씬도 못했고 말고” “중구난방이지 암탐이 올면 집안이 망하는 법이나라 조개 황새 싸움발에 남 좋은 일 시키제 흥”

작년에 왜놈에게 살해 당한 민비에 대한 비난이다.(48쪽)

그러나 한일 병합 이후 일본의 식민 지배가 야기한 독점적 지위가 생 활세계에 미치는 영향은 ‘이웃집 나그네’나 ‘검은 연기’ 수준이 아니라 개 개인의 일상에 직접적인 위기로 닥쳐온다. 일례로 김약국의 가업인 ‘한의 원’이 영업이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어장 운영도 힘들어진다. 통영 인근 바닷가에 일본 업자들이 “고기 나는 목을 다 차지하고 앉아서” 삶의 다른 방식을 모색해야 해서, “결국 김약국은 제주 인근에 보낼 기관선을 따로 준비하게 된다. 인근 해안에서 고기잡이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큰 자본이 요구되는 기관선을 계획한 것인데 이에 따라 종전과는 다른 위험을 감수하게 된다. 그러나 식민/자본의 영향으로 친일파 정국주는 고리대금업으로 부자가 되었고, 대대로 통영 지주였던 김약국은 정국주에게 땅문서를 댓가로 돈을 빌리게 된다.

일본/식민/근대의 질서 속에서 김약국은 쇠락을 거듭한다. 그 여파는 경제적인 문제에 그치지 않고 기존의 윤리와 도덕, 관례와 풍속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를테면 김약국의 셋째 딸 용빈은 정국주의 아들 홍섭과 결혼을 약속한 사이지만, 이 둘의 결혼이 파기되는 중요한 변수 중 하나가 김약국의 경제적 여건과 상당 부분 관련이 있다. 또 김약국의 첫째 딸 용숙이 역시 김약국 집안과 연을 끊은 채 살아가는데, 그런 그가 “통영 바닥이 뒤집어질 만큼 소란스럽고 추잡한 화제”를 던진 불륜의 주인공이 되지만, 실은 그가 통영의 부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내보란 듯 활개”치며 다닌다. 심지어 용숙은 말끝마다 “큰소리치는 것이 돈”이라는 “인생철학”을 가치관인 양 떠들게 된다.

2.2. 가문의 존속과 여성의 섹슈얼리티

이렇듯 통영의 변화는 분명하다. 전근대/근대, 식민/제국, 봉건/자본 간의 변화 속에서 김약국 가문은 몰락해간다. 김약국은 통영에서 귀감이 되는 존재로 신망이 두터운 편이며, 그런 만큼 사회적, 경제적 지위 또한 분명하다. 어장 운영과 관련해서도 다른 지주(자본주)들과 달리 주종관계에 기반한 의리와 인정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김약국이 신식 의학과는 대척적인 지점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것과는 일면 연결된다. 김약국은 큰아버지인 김봉제 영감의 성품을 닮아 차분하지만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자리에 놓여 있다. 이는 단지 직업만의 문제로 그치지 않는다. 가족에 대한 태도에서 더 노골적이다. 집안의 경제적 문제 뿐만 아니라 딸들의 결혼까지 직접 개입, 결정하는 것이 그 예이다. 결혼이야말로 가문의 가치와 명운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김약국은 봉건적이고 가부장적인 방식으로 딸들의 결혼을 주선하는데 이는 갈등의 원인이 된다. 이를테면 김약국은 딸의 결혼 문제나 집안의 대소사와 관련해 아내 한실택과 상의하지 않는다. 한실택의 의견을 묻지 않는 것은 물론, 의견을 존중하지도 않는다. “아버지를 존경하고 깊은 애정으로 대하는 용빈이었으나 아버지가 어머니의 존재를 무시하고 남처럼 무관심하게 대하는 태도에는 불만을 느낀다”(92쪽)고 말할 정도이다.

같은 맥락에서, 김약국이 가문을 존속시키기 위해 딸들의 섹슈얼리티를 금지하고 억압하는 방식이 전경화된다. 예컨대, 딸들의 섹슈얼리티를 가문 간의 계약으로 관리하는 방식이 대표적인데, ‘사랑’과 ‘상’은 개인의 가치판단과 무관하게 김약국의 결정을 통해 좌우된다. 특히 여성의 섹슈얼리티는 가문 안에서 관리된다. 김약국 집안의 딸들은 용숙, 용빈, 용란, 용옥, 용혜 등이다. 이 중에서 용숙과 용란처럼 개인의 성적 지향이 분명해서 김약국과 직접적으로 대립하는 딸들도 있고, 용빈과 용옥처럼 가부장적 이상을 실현하는 딸들도 있다. 막내인 용혜는 텍스트 문면에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

우선, 김약국과 직접적으로 갈등으로 벌이는 용란과 용숙부터 살펴보면, 용란은 김약국 집안의 셋째딸로서 ‘말괄량이’이나 ‘달나라 항아같이 어여뵈’ 딸이다. 결혼할 나이가 되자 김약국은 용란을 ‘기두에게 주기로 했다’고 마음 먹는다. 그러나 그것과 별개로 용란은 한돌을 사랑해서 밤마다 담을 넘어 집밖에서 사랑을 나눈다. 김약국은 용란이 한돌과 사랑을 나눌 때 찾아가 한돌을 폭력적으로 다스리며 마을에서 나가라고 명한다. 그가 용란과 한돌의 사랑을 용납할 수 없는 이유는 분명하다. 우선 한돌은 김약국 집안의 하인이었던 지식원의 아들이다. 한돌은 한일합방이 발표되는 해 마을사람들이 “통곡하며 울부짖던” 바로 그 시점에 이 집의 하인이었던 석원이 데리고 들어온 아이이다. 석원은 아이를 맡기자마자 목숨을 끊었고, 그 후에 ‘무당 자식’으로 밝혀진다. 김약국과 한실택은 ‘무당 자식이 들어와서’라는 말하며 ‘근심’을 지워내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한돌이가 하인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다. 용란과 한돌의 관계를 용납할 수 없는 것은 주종관계에 기반한 봉건제의 모순과 여성의 성을 관리하는 남성 가부장제 하의 결과이다. 분명한 것은 가부장제 하에서 성의 거래는 가문간 결혼을 통해서만 계약된다는 사실이다.

김약국은 단장을 들고 일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비오듯 땀이 흘러내린다. “이놈아” 단장이 허공에 뚫다. “억” 한돌이 얼굴을 싸며 폭 쓰러진다. 용란은 선불 맞은 암호랑이처럼 흰 속치마를 나풀거리며 신발을 벗은 채 솔밭 사이를 뛰어 내려간다. 연거푸 한돌이와 머리를 내리치던 단장이 두 동강이 나서 날았다. 이를 악물고 신음하던 한돌이는 피를 줄줄 흐르는 얼굴을 들었다. “어, 어르신……살려주이소 주, 죽을 죄를 졌습니다” 흑흑 흐느껴 운다. 김약국은 그를 내려다본다. “가거라, 어디든지,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111쪽)

김약국이 용란의 행위를 눈치 채고 뒷산으로 찾아가 한돌을 내려치며 이들을 갈라놓을 때 했던 말은 “가거라. 어디든지,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

지 마라”이다. 한돌은 의관도 정제하지 못한 채 그대로 사라져서 마을을 떠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김약국의 판단은 용빈을 통해서도 지지된다. 용빈은 김약국을 대신해서 용란의 사랑을 만류하려다가 사랑을 나누는 장면을 목격한 후 이 문제를 선교사에게 상담한다. 용란과 한돌이의 애정 행각을 최초로 발견한 용빈은 ‘본능’에 충실한 동물들의 원초적 사랑이라고 느낄 정도로 야수적인 느낌을 받은 바 있는데, 용빈은 이런 행위를 하는 용란이 수치도 모르는 동물과 같다고 생각한다. 용란의 사랑은 용란을 통해서도 근대/기독교 질서 밖에 놓인 원시/짐승의 것으로 판단된다.

김약국이 용란의 섹슈얼리티를 관리하는 방법은 가문 간 결혼을 통해 딸을 ‘출가외인’으로 내보내는 일이다. 가문간 거래를 통해 섹슈얼리티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다. 그런데 용란과 결혼한 남편 연학은 성불구자로 의심과 질투를 전전하며 폭력을 행하는 남성이다. 그래서 용란은 울며 불며 친정을 자주 오게 되는데 그때마다 한실택(김약국 부인)은 용란을 불쌍해 하며 슬픔을 감추지 못한다. 그렇게 살아가던 어느 날, 마을을 떠났던 한돌이 다시 돌아와 용란에게 같이 살기를 맹세한다. 용란이 역시 천생배필을 만난 듯 한돌과 같이 살기를 소망하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 한실택은 한돌을 다시 내보내야겠다고 마음 먹고 용란의 집을 찾아가는데, 아내에게 남자가 찾아왔다는 눈치를 챈 연학은 장모 한실택을 보자마자 쳐 죽이고, 한돌 역시 찾아가 죽인다. 용란은 이 폭력을 목격한 후 실성한다. 연학의 폭력은 구조적인 것으로 김봉룡 사건이 다시 변주된 것이다. 성불구로 아내를 의심하던 연학은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문제 삼아 폭력을 행사하며 그 과정에서 비극적 죽음을 초래한다. 비극은 구조적이며, 가족 내부에서 파생되고 있다.

김약국택의 살림은 기우는 일로를 달리고 있었다. 그러나 통영 바닥이 뒤집어질만큼 소란스럽고 추잡한 화제를 던졌던 용숙은 변창의 일로를 달리고 있었다. [...]으레 돌려세워놓고 손가락질하는 인심이지만 우선 돈이 많고 기승하고 청산유수같이 흐르는 변설 앞에는 당할 사람이 없다. 남의 일

에 사서 욕망도 시비받기를 꺼리는 때문이기도 하지만, 소소한 어장애비자 장사꾼들치고 용숙에게서 빛 안쓴 사람이 없으니 아니꼽고 천히 여기면서도 걸으론 기부인 대접을 해야 했다.(231쪽)

같은 맥락에서 첫째 딸 용숙의 섹슈얼리티 역시 텍스트 전면에서 다루어진다. 용숙은 샘이 많고 ‘재산에 통대(탐욕)’가 있는 인물로 소개된다. 결혼했지만 남편과 사별한 후 과부로 살아가는데, 김약국은 용숙이 집에 찾아와도 모른 척한다. ‘출가외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용숙은 사람 대접 못 받는다고 푸념한다. 용숙은 아버지-남편 질서 밖에 놓여 있는 여성으로 간주되며, 오직 아들을 키우며 정숙하게 살아가라는 도덕률만을 강조받는다. 하지만 이 전근대적인 규율은 용숙의 욕망을 억압하지 못한다. 용숙은 아들의 병을 치료해 주러 온 의사와 정을 나누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아이를 우물에 빠트리 독살했다는 혐의까지 받게 된다. “많은 재산을 잃을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아이를 낳자마자 죽여서 연못에 빠트렸다”(202)는 소문인데, 용숙은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난다.

아이 죽음과 관련한 소문에서도 나타나는 바, ‘샘이 많은’ 용숙은 경제력을 최고의 가치로 둔 정도로 욕망이 강하다. 그래서 통영 전체에서 추저분하게 회자되는 스캔들의 주인공이었지만, 용숙은 주위의 시선을 의식하기보다 자본 증식에 대한 욕망에 집중한다. 용숙의 도덕률은 ‘요조숙녀’의 윤리와 무관하게 작동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용숙은 점점 더 부자가 되는 길로 나아가며 가세가 기우는 김약국 집과는 다르게 식민/자본 경제에 적극 편입하게 된다. 용숙은 김봉룡과 일면 닮아 있다. 남성/여성의 위치만 바뀌었을 뿐, 위기를 해결하는 과정에 죽음을 동반한 폭력이 행사되며 이를 통해 주체의 위치를 점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비극의 구조가 근대/자본과 연동하며 주체의 위치만 바꾼 채 변주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김약국 집안에서 금욕적인 방식으로 섹슈얼리티를 억압하고 있는 용옥과 용빈은 어떠한가. 우선, 용빈은 김성수가 유일하게 집안 문

제를 상의하는 ‘아들’ 노릇을 하는 딸이다. 김약국은 한실택을 무시하거나 외면하지만, 용빈에게만은 의견을 물으며 의지한다. 일종의 아버지를 대리하는 아들로 사고하는 것이다. 김약국은 김봉제의 장자가 아니었음에도, 아들에게 세습한다는 규율에 따라 백부 김봉제의 가업을 물려받게 되었는데, 아들이 없는 김약국에게 용빈은 그런 역할을 하는 딸인 셈이다. 용빈을 두고 김약국이 ‘대장부’로 생각하며 칭찬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용빈은 서울에서 여전을 다니며 근대 학문을 익히고 있으며, 신실한 신자로서 선교사에게 자문과 의견을 구하며 삶의 곤경을 헤쳐 나간다. 집안 간 계약으로 결혼이 예정된 홍섭과 만나고 있지만, 기독교 신앙이 신실한 두 남녀는 금욕적인 방식으로 결혼과 사랑을 일체화한다. 이 작품에서 홍섭이 애정을 표현한 장면은 헤어지기 직전 얼굴에 키스를 한 것인데, 이를 두고 용빈은 화를 냈고 홍섭은 ‘소년처럼 풀이 죽은 채로 끝나는 일이 있었다. 용빈과 홍섭의 유일한 애정 표현이 용빈의 금욕적인 태도로 수포로 돌아간 것인데, 이는 금욕적인 방식으로 섹슈얼리티를 관리하는 용빈의 태도가 반영된 것이다.’⁷⁾ 하지만 집안 간에 약속된 결혼은 결국 성사되지 못한다. 결혼이 성사되지 못하는 결정적 이유는 홍섭이 의도치 않았지만 다른 여자와 정을 통하게 되었고 홍섭의 아버지인 정국주가 기정사실화해서 결혼을 파기해버린 것이 주요한 이유이다. 김약국 집안의 가세가 기울자 가문 간 약속도 쉽게 깨진 것인데, 그만큼 종전 방식의 약속과 규율 자체가 무의미해지거나 불안전해진 세태를 반영한다.

며칠 후 가덕도 앞바다에 가라앉은 신강호는 인양되었다. 용옥의 시체는

7) 『김약국의 딸들』에서 용빈의 성격을 설명하는 외적인 사건으로 광주학생사건이 삽입된다. 용빈은 이 사건으로 경찰에 검거되는데, 다른 사건과 달리 광주학생 학생은 사건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서울 학생들까지 가담하는데 여학생들이 주체적으로 나선 역사적 사건이다. 용빈이 지닌 주체적 면모를 드러내는 데 적합한 사건으로 텍스트에 기입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929년 10월 25일 광주학생사건이 경찰에 검거되었다는 소식이 날아왔다. 그해 11월3일 광주교보 학생들이 일인들의 광주중학을 습격함으로써 사건은 확대되었다.”(120쪽))

말짱하였다. 이상하게도 말짱하였다. 다만 아이를 껴안고 있는 손이 떨어지지 않아서 시체를 모래밭에다 나르는 인부들이 애를 먹었다. 겨우 아이와 용옥의 시체를 떼어냈을 때 십자가 하나가 모래 위에 떨어졌다.(372쪽)

김약국 집안에서 한실댁의 빈자리를 대리하는 용옥은 어떠한가. 용빈이가 아버지를 대리하는 아들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 용옥은 집안을 도맡아 하며 언니들을 챙기는 말없는 집안의 천사이다. 그런 용옥을 김약국은 어장 일을 관리하는 기두에게 맡기려고 한다. 원래 김약국은 셋째 딸 용란을 기두에게 보내려고 했지만, 용란이가 한돌의 사랑이 소문나면서 기두가 용란이와의 결혼을 포기한 바 있다. 그럼에도 기두는 딸 중에서 외모가 가장 수려한 용란이에게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외모가 덜하고 말없는 용옥이에게는 마음을 주지 않는 채로 결혼생활을 이어 나간다. 용옥의 불행은 바로 사랑없는 결혼 때문에 발생한다. 기두는 용옥을 외면하며 집을 떠나 있게 되는데, 그 틈을 타서 시아버지가 용옥을 강간하려고 하자, 용옥은 남편을 찾아 나서게 되고 그 길에서 태풍을 만나 비명횡사한다. 용옥의 결혼 생활 역시 불행과 비극으로 점철되어 있다. 김약국의 명으로 가정을 이뤘지만,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가장 일반적인 가정을 꾸리지만 기두와 용옥 사이에는 성도 사랑도 없다. 죽은 용옥은 다른 인물들과 다소 다른 방식으로 묘사된다. 태풍에 휩쓸려 시체로 발견된 용옥의 모습이 ‘말짱’한 것 뿐만 아니라, 아이를 부둥켜 안고 죽은 용옥을 아이와 떼어냈을 때 십자가가 떨어졌다고 묘사된다. 이는 용옥을 희생양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반영된 것으로, 가족 내부에 도사린 성과 사랑의 균열이 결국 폭력적 구조로 희생양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낸 것이다.

그런데 이 소설에서 섹슈얼리티 억압으로 인한 비극성은 김약국 가문만의 문제가 아니다. 태운-순자, 옥화-택진, 정운-윤희 등 대부분의 인물들은 섹슈얼리티의 불만 상태를 경험한다. 태운은 선배의 부인을 사랑하고, 옥화 역시 계급 차이로 인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에 좌절한다. 정운은 윤희와 원만하나 윤희가 병을 앓고 있다. 이에 대해 서술자가 “비정상

적인 연애 속에서 그들은 일종의 자학을 맛보고 있다”(341쪽)고 말할 정도로 섹슈얼리티의 왜곡이 언급된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어느 누구도 사랑과 성을 원만하게 향유하는 사람은 없다. 김약국-한실택, 김약국-소칭, 김약국-연순, 용숙-(사별), 용숙-(의사), 용란-한돌, 용란-연학, 용빈-홍섭, 용옥-기두, 기두-용란 등 모두 사랑과 성의 억압 속에서 자유롭지 않다. 전근대/근대, 봉건주의/자본주의, 주술/과학(학문)의 대립하고 균열하는 과정 속에서 가문을 이루고 있던 성의 억압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즉 『김약국의 딸들』에서 가문의 몰락은 전근대/봉건/가부장의 패러다임 속에서 섹슈얼리티를 억압했던 세계의 모순이 드러나는 과정이다.

3. 히스테리에서 주이상스로

이 소설은 ‘비극의 탄생’이라고 말할 만큼 비극이 잉태되는 구조에 천착하고 있다. 김약국 가문의 몰락은 비극이기는 하지만 비극의 전모는 아니다. 김약국 가문의 몰락은 두 번에 걸쳐 이루어진다. 한번은 김봉룡의 죽음 이후 김성수만 남는 사건으로, 또 한번은 김약국 가문이 몰락하며 딸들이 남는 것으로 재현된다. 가문의 거둬진 몰락은 언뜻 보기에는 비극의 대물림으로 보여지지만, 무엇이 반복되고 무엇이 반복되지 않는지 다시 물어야 한다.

일단, 반복되고 있는 것은 폐가·멸족에 가까운 비극의 대물림이다. 1세대 김봉룡의 비극은 ‘노란 머리카락’으로 통용되는 외부성을 성적순결성의 문제로 오도해 폭력적으로 관리한 사건에 기초해 있다. 순혈주의에 기반해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주체의 위기로 해석한 결과이다. 성의 억압에 기초해 한 가문을 유지시켜 내고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오직 아들 김성수(김약국)만 살아남았다. 이는 김약국 대에 일어난 비극과 유사하다. 김약국 역시 약국을 물려받아 가업을 잇지만, 딸들의 결혼에 직접 개입하면서 딸들의 섹슈얼리티를 관리한다. 용숙, 용빈, 용란, 용옥 모두 김약국의

명령으로 결혼이 성사되거나 애정관계가 파기되거나 결혼 약속을 해 둔 상태이다. 그러나 섹슈얼리티의 억압에 기초한 가문의 존속은 더 이상 불가능해 보인다.

비극은 반복되었지만 차이 또한 분명하다. 1세대 비극에서는 김약국이 남았지만, 2세대에서는 4명의 딸이 남았다. 이는 2세대에 이르러 아들로 대표되는 장자 중심의 계보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인 동시에 특정 지역에 근거한 순혈주의 자체가 무의미해졌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다. 1세대의 비극은 순혈주의에 의한 섹슈얼리티 억압이 낳은 비극이지만, 김약국을 통해 복구되면서 남성 중심의 계보를 이어나가게 된다. 그러나 2세대에 이르러 남성 중심의 계보는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결혼을 통한 가문의 존속도 파탄에 이른다. 뿐만 아니라 대대로 통영을 기반으로 한 가문도 더 이상의 효력을 상실했다고 봐야 한다.⁸⁾ 통영'은 가문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지연과 혈연의 공간적 배경이지만, 실은 국가와 국가의 경계에 놓인 입구이자 경계로 전근대/근대가 분열하는 양상을 잘 드러내는 토포스이다.

비극 이후에 살아남은 '김약국'과 '딸들'은 비극에 대한 태도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김약국의 경우 가업을 이어가면서 가문 내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행한다. 뿐만 아니라 그는 가문이 멸족 지경에 이르는 과정에서 연순 누이의 죽음을 잊지 못한 채 살아간다. 봉룡의 죽음 이후 도깨비집이 되어 버려 고아 상태나 다름 없었지만, 백부 김봉룡의 보살핌으로 김성수는 가업을 잇게 되는데, 이때 '노란 머리카락'(‘밤색 머리카락’)을 가진 연순 누이를 깊게 사랑한다. 다음 생을 기약할 정도로 연순 누이를 좋아했던 김성수는 막내딸 용혜가 연순 누이와 닮았다고 하면서 용혜를 이뻐한다. 용혜 역시나 노랑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노랑 머

8) '통영'을 '고향'으로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통영'이 김약국 가문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스토리 차원의 공간적 배경이기는 하지만, 이 소설에서 '통영'은 혈연과 지연으로 연결된 봉건적 질서와 이를 해체하는 근대적 질서가 교차하는 경계의 장소이다.

리카락이, 대를 이어오면서 사랑의 기표로 전치된 것이다.

고모할머니 봉희가 살아있을 때 용혜는 봉룡이 할아버지를 많이 닮았다고 한다. 돌아간 날을 몰라 칠월 백중에 제사를 모실 때도 고모할머니는 용혜를 보고 언짢게 혀를 끌끌 차곤 했다. 그러나 김약국은 용혜를 두고 연순을 연상하였다. 입밖에 말을 내지는 않았으나 어떤 때는 심한 착각을 일으키는 일까지 있었다. 김약국은 연순이가 어릴 때 봉제 영감이 그랬듯이 용혜를 노랭이라 부르며 사랑하였다. 다른 딸들은 모두 머리털이 칠푼처럼 검었는데, 용혜만은 밤색 머리칼이었다.(83쪽)

김성수가 연순 누이를 잊지 못하는 것은 다른 여자들에게 ‘정을 표현’하는 데 인색한 것에서도 나타난다. “과거에도 김약국에게 반한 여자들은 많았다”고 알려졌지만, 김성수는 “한 번도 마음이 동하지 않았다”고 말할 정도로 정을 표현하지 않는다. 과거 사춘누이를 짝사랑했던 시절의 마음과는 분명히 다르다고 할 정도이다. 이는 김약국이 연순 누이를 상실했지만, 상실했다고 생각하면서 용혜를 통해 그 기억을 존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사랑하던 대상의 상실을 인정하지 않은 채 그 대상에 대한 사랑을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김성수는 슬픔을 내면화하고 있는 우울증 자로서의 면모를 띠는 듯 볼 수 있다. 때문에 그는 기생 소청의 고백으로 소청의 집에 드나드는 상황에서도 소청이의 애정 표현에 지극히 금욕적인 방식으로 대응한다. 뿐만 아니라 ‘소청이의 젊음’에 응혜 줄 만큼 마음도 몸과 기름지지 못한 것 뿐만 아니라 ‘정이 솟질’ 않는다고도 말한다.⁹⁾

9) ‘노랑 머리카락’이 텍스트 내에서 반복되는 것과 관련 김은경 역시 아버지(김봉룡)을 향한 그리움과 연결되어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김약국의 연순을 향한 금단의 사랑은 그가 부모대의 비극에서 놓여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낸다”고 언급한다. 이와 유사한 해석은 김영애에게서도 보인다. 그런데 ‘노랑머리’에 대한 김약국의 그리움을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나 ‘그리움’으로 곧바로 연결시키는 것은 다소 무리하다. 김약국이 사랑하는 대상은 연순이었고, 연순은 근친상간의 금기를 통해 금지된다. 그런데 김약국의 사랑의 대상을 ‘연순이’로 진단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소청이의 뺨을 한번 때려 주고 나와버린 김약국이었다. 넘쳐나는 소청이의 정열은 김약국에게 공포심을 일으켰다. 소청의 젊음에 응해 줄 만큼 마음도 기쁨도 기름지지 못한 김약국이었다. 마음이 기름지지 못하여도 몸이 기름졌을 시기에는 김약국도 고독하였지만 공허하지는 않았다. 여자가 없어도 좋았다.(282쪽)

위 인용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김약국은 젊은 시절 ‘고독할 수는 있지만 공허하지 않다’고 말해진다. 그가 사랑의 대상을 잊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의 반증이다. 그런데 그는 ‘기름지다’는 표현을 통해 섹슈얼리티를 외면하거나 억압하면서 살아왔으며, 심지어 소청이 직접적인 성적 요구에 ‘뺨을 때리는’ 식으로 대응하면서, 여성의 섹슈얼리티 표현 자체를 공포스러워하고 있다. 김봉룡이 아내를 의심하며 폭력으로 다스리려고 하는 것과 김성수가 여자의 섹슈얼리티를 공포스러워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이다. 김성수는 김봉룡의 성격과 다르지만, 여성의 섹슈얼리티 자체를 실존적 위기로 생각하는 점은 마찬가지다. 이는 김약국 대에 이르러서도 비극이 지속되는 이유이다. 상실된 대상에 대한 애착으로 아버지의 질서를 고스란히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즉 아버지의 계보를 잇는 것과 연순 누이에 대한 사랑을 잊지 못하는 상태가 김성수에 이르러 상흔이 지워진 채 증상으로 남아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비극의 구조는 잠복된 채로 지속된다.

그렇다면 2세대 비극에서 살아남은 ‘딸들’은 어떠한가. 용빈과 용혜 그리고 용숙과 용란에 이르기까지 비극의 유산으로 남은 이들은 김약국과

‘연순이/노랑머리’로 동일시한 후 이를 ‘노랑머리/아버지’로 연결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다. 김약국과 연순의 관계 역시 가부장제 질서가 강제한 성적 억압의 관계이다. 즉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김약국이 아버지의 위치에서 그 역할을 반복하는 것이고, 연순에 대한 그리움은 이를 불만족 상태로 경험하는 것이다. 즉 아버지와 연순을 동일한 층위에서 욕망한다고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는 작품의 해석과 연결된다. 김약국의 감정 자체가 아니라 김약국의 감정구조에 초점을 맞춰, 비극을 다시 파생시키는 구조적 측면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 일별한 것처럼, 용빈은 김약국에게 ‘아들’을 대리하는 딸이지만, 어머니를 무시하고 차별하는 아버지의 태도에 거리를 둘 수 있는 딸이다. 용빈은 이 작품의 초점인물로서 이 작품의 마지막까지 남아있지만, 그렇다고 마지막까지 용빈이 지닌 초점인물로서의 권위가 텍스트 전체를 지배한다고 보기 어렵다. 우선, 김약국과는 달리 용빈은 유일한 적자로서 살아남은 것처럼 보이지만, 통영에는 용숙과 용란이 남아 있다. 표면적으로는 용혜가 용빈처럼 교육을 받아 다른 삶을 모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한 것은 ‘딸들’의 삶 전체를 동시에 포착하는 일이다. 통영에 남아있는 용숙은 자본가의 길로 나아갈 가능성이 농후해 보이고 용란은 통영 집에 홀로 남아 살아가게 된다. 이는 봉룡의 아내인 숙정의 죽음 이후 ‘도깨비’ 집이 되었던 것과 비교해 보면 유사한 측면이 있다. 봉룡의 집이 도깨비 집으로 사람들이 얼씬거리지 않은 폐가가 되어버렸다면, 김약국의 집은 ‘미치광이 용란’이 살아가는, 격리와 감금의 공간이 되었다. 이 버려진 집에 누가 되돌아 올 것인지 생각해 보면, 그 차이는 분명하다. 도깨비 집의 계보를 잇는 것은 집 떠난 방황하던 김약국이었고, 용란을 찾아오는 것은 집 떠난 용빈과 용혜일 것이다.

“그 여자는 사랑을 느끼기보다 본능에 움직였어요. 거기 대하여 모욕을 느끼기보다 신선한 ...표현할 수 없군요. 바보처럼 친진한 그의 인간성에서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용빈은 표현 부족한 자기 말, 아니 그보다 처녀로서 표현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 고통을 느끼는 듯하였다. (...)그 여자는 하나님 앞에서 간음을 범한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우리의 생각일 뿐이며 우리가 보는 사실일 뿐예요 그 여자는 몰라요 자연 속에서 어떤 생물이 자라나듯 그 여자는 다만 존재해 있을 뿐입니다. 그 여자가 어떤 가장 유치한 정도라도 신비를 느꼈을 것 같습니까?” 용빈은 흥분하기 시작했다. “영혼과 육체를 같이 주시지 않고 본능과 육체만 주셨다면 하나님은 그 여자를 벌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나 모든 사람은 그 여자에게 벌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는 벌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모르니까요. 벌을 받고

있는 사람은 아버지예요 어머니예요 그리고 우리들이예요”(114~115쪽)

용빈에 대해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이 있다. 이 작품의 초점인물인 용빈조차 용란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¹⁰⁾ 용빈은 용란이 한돌과 벌인 행위에 대해 가문을 더럽히는 불륜적 쾌락 정도로만 해석하면서 괴로워한다. 실제로 용빈은 용란의 행위에 대해 ‘죄와 벌’의 패러다임으로 생각하면서 가족들이 오히려 더 큰 괴로움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호소한다. 즉 용란에게 ‘죄’가 있는데 벌을 받고 있는 것이 가족이라는 사실이 문제적이라고 생각하며 괴로워한다. 뿐만 아니라 용란의 행위에 대해 ‘표현 부족한 말’이라고 하면서도 자신 스스로 용란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고백한다. 다시 말해 용빈은 용란을 설명할 수 있는 언어를 가지고 있지 않다. 섹슈얼리티와 언어가 유사하게 작동하며 상호 보완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는 언급은 이미 지적되고 있다.¹¹⁾ 용빈은 용란의 섹슈얼리티를 표상해낼 수 있는 언어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미 근대 지식을 가지고 김약국 가문에서 어느 상황에서나 말의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용빈이지만, 용빈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쾌락’과 ‘죄’ 정도로 표상되는 기존 질서의 언어뿐이다.

용빈은 용란의 섹슈얼리티를 ‘쾌락’ 정도로만 이해한다. 용란의 섹슈얼리티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영화 <김약국의 딸들>은 용란을 성적 욕망이 과잉된 여자로 그려내지만, 기실 그렇게 이해해야지만 겨우 용란의 섹슈얼리티를 표상할 수 있기 때문인데, 분명한 것은 용란의 섹슈얼리티는 텍

10) 용빈이 이 소설의 초점인물로 기능하지만, 이 소설의 주제가 용빈을 통해 실현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혜진은 ‘우리 근대사 역시 근대의 주체가 남성이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를 용빈이 윤리적 윤리적 주체로 성장해가는 측면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이렇게 볼 경우 ‘딸들’의 서사가 텍스트를 분열시키는 지점들을 놓치게 되며, ‘남성적 근대’를 비판적으로 사유하는 이 소설의 문제제기를 적극적으로 담아내지 어렵다.

11) 크리스티나 폰 브라운, 『논리, 거짓말, 리비도-히스테리』, 엄양선 역, 여이연, 2003. 150쪽.

스트를 관통하는 내내 이해되지 못한 채 남아있다는 사실이다. 심지어 용란은 김약국의 통영 집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주인이 된다. 미치광이이자 정신병을 앓고 있는 인물이지만,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은 다른 인물들과 달리 용란은 사랑이 제거된 섹슈얼리티를 향유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용숙과 비교해 보면 분명히 드러난다. 용숙은 매번 남자를 바꿔서 자기 결핍을 채우지만, 용란에게 성과 사랑은 한돌에게 일체화되어 있다. 즉 텍스트를 관통하는 내내 용란의 섹슈얼리티는 쾌락이 아니라 주이상스에 가깝다. 용란은 자기 욕망이 머물렀던 그 자리에서 주체화된다.¹²⁾

김약국 가문의 몰락은 시대적 변화에 조용하지 못한 불운의 결과가 아니라 섹슈얼리티의 억압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고자 한 식민/근대/가부장제 모순의 결과이다. 이 비극은 그 모순의 드러남이다. 그러므로 식민지근대를 분열시키고 있는 것은 김약국의 질서 내부에서 근대/자본과 접촉하며 그 울타리를 넘는 딸들의 섹슈얼리티다. 용숙은 성욕망과 자본 증식의 욕망을 일체화하면서 남성 경제에 편입하고자 하며, 용란 역시 기문 내에서 관리할 수 없는 섹슈얼리티로 비극적 사건의 주인공이 되었다. 또 용옥은 표면적으로는 일반적 가정을 유지하고 있지만 실은 그 가정 안에 가장 큰 위험과 폭력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었다. 이 딸들의 사건들은 스캔들과 사고처럼 우연적으로 처리되고 있지만, 이 섹슈얼리티는 김약국 내부의 질서를 반복적으로 소환하고 분열시키는 역동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 드러나는 바, 다양한 패러다임이 충돌하는 위기 속에서 식민지근대가 섹슈얼리티 억압을 통해 관리, 유지되었다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그러나 그 억압의 실패를 드러냄으로써, 식민지근대의 새로운 가능성이 드러난다. 아버지의 질서가 몰락하는 것은 식민지근대가 야기한 사회정치적 변화와 일정 정도 연결되어 있기도 하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여성의 섹슈얼리티가 야기한 역동을 통해 그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12) 브루스 핑크, 『욕망을 넘어서는 정신분석 기술』, 『라캉과 정신의학』, 맹정현 역, 민음사, 2002, 370쪽.

요컨대 텍스트 안에서 여성의 섹슈얼리티가 식민지근대를 분열시키는 징후는 반복적이다. 용숙은 자본주의 경제와 접속하며 김약국이 원하는 ‘요조숙녀’의 기대를 넘어서고 있으며, 용란은 봉건 신분제에 기초한 계급을 초월해서 자기 성욕망에 충실하다. 용빈은 근대 지식의 빛을 통해 통영을 넘나들며 아버지를 대리하는 인물로 성장하고 있으며, 용옥은 사랑이 없는 결혼생활의 모순을 그대로 체화함으로써 가부장제 내부의 균열을 드러낸다. ‘딸들’은 근대/자본/학문 등과 결합하며 김약국 가문의 신분제/봉건/주술적 세계의 해체를 야기하는데, 이들의 성적 지향은 김약국의 가부장제 질서에 반하며 지향된다는 점에서 히스테리적이다.

하지만 딸들의 서사는 마지막 장에 이르러 적극적인 형태로 변화된다. 김약국이 죽고, 용빈과 용혜가 새로운 길을 찾아 떠나는 장면에서 이르러, 딸들의 욕망은 다른 방식으로 재편된다. 『김약국의 딸들』에서 용빈과 용혜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른다. 그저 통영을 벗어나서 다른 계보를 상상하는 것뿐이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김약국의 위치를 대신하는 인물은 미친 여자로 얘기되는 용란뿐이다. 용혜와 용빈의 길찾기에서 발견해야 하는 것은 남성적 쾌락을 넘어서는 여성적 주이상스일지도 모른다. 만약 그렇다면 이 여정의 끝은 다시 통영으로 돌아가는 여정일 지도 모른다. 주이상스를 드러냈던 용란이가 텍스트의 공백으로 남아서 통영 집을 지키기 때문이다.

4. 남성적 근대의 공백

『김약국의 딸들』은 구한말에서 식민지로 넘어가는 시대적 배경 속에서 ‘김약국’ 가문의 몰락을 그리고 있다. 남해안의 작은 도시 통영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김성수와 그의 아내 한실택 그리고 다섯 딸의 운명을 다룬다. 이 시기 항구 도시 통영은 『탁류』의 군산 만큼이나 식민지 자본의 흐름이 두드러지는 공간이다. 『김약국의 딸들』은 이를 배경으로 한 가문

의 몰락과 다섯 딸의 운명을 동시에 재현한다. 박경리는 이 소설을 1962년에 출판한다. 그가 1962년에 이 소설을 발표하면서 하고자 한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 이 안에서 무엇을 말하고자 했을까. 소설이 과거에 대한 이야기인 동시에 현재의 이야기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 소설의 메시지는 구한말에서 식민지로 넘어가는 이야기 속에 1960년대 현실과 긴밀하게 조응하고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뜻이다. 이는 제목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처럼, ‘김약국 가문’과 ‘딸들’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이자 근대 너머를 상상하기 위해 필요한 상상력에 대한 물음일 지도 모른다.

『김약국의 딸들』은 식민지근대를 맞이하는 조선이 비극성을 묻는 작품이다. 주목할 것은 이 소설에서는 ‘식민지근대’라는 시대적 배경만으로 개인의 비극을 조망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 가문의 이야기이지만, 조선이 맞이하고 있는 식민지근대의 비극성을 조망하는 동시에, 여성의 삶을 통해 그 비극성의 면면을 드러낸다. 비극의 핵심에는 섹슈얼리티가 놓여 있다. 그래서 한 집안의 몰락 원인을 ‘일본/제국’의 기표에 환원시키지 않는다. 오히려 식민지/자본/근대의 가치들이 경합, 충돌하는 모순과 그 양상에 집중한다. 이를테면 ‘검은 연기’로 상징된 ‘외세’의 위력은 시장 질서의 독점적 지위와 대자본의 유입으로 나타나 통영 경제에 변화를 미치며 김약국 집안의 몰락을 부추긴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위기에 대한 민심의 반응은 ‘대원군/민비’ 간의 성별 대립으로 치환시켜 불안을 해소하는 방식이다. 김약국 가문의 비극도 다르지 않다. 김약국은 가문을 존속하기 위해 섹슈얼리티를 억압 관리한다. 소설의 첫 장면에서 김봉룡은 ‘노란 머리카락’으로 표상되는 이질성의 기표를 실존적 위기로 해석해서 성의 억압을 통해 그 불안을 해소하려고 하는데 이와 같은 양상은 텍스트 안에서 반복, 변주된다. 김약국이 딸들의 성과 사랑을 억압하는 양상 속에서도 나타나고, 성불구자 연혁이 용란을 확대하는 과정에서도 반복된다. 하지만 비극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내부의 ‘구조’로 자리 잡고 있다. 가문(가족)을 존속시키기 위해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억압, 금지하는 것은 가부장제의 핵심이다. 그러나 역사의 구조 변동 속에서 성의 억압에 기초

한 가문 유지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김약국 가문의 몰락은, 봉건, 가부장, 자본 등과 결탁한 가문의 몰락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문의 몰락은 그 자체로 비극이지만 전적으로 애도되지는 않는다. 소설의 마지막에 용빈과 용혜는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위해 통영을 떠나고, 김약국 집에는 미치광이 용란만 남았다. 용란은 텍스트의 공백으로 남아있고, 용빈과 용혜는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 길을 떠난다. 비극이지만, 슬프지 않은 이유이다.

『김약국의 딸들』은 식민지근대를 돌아보며, 또다른 근대를 상상해보게 한다. 우리의 근대 역사가 비극이라는 사실에는 동의하지만, 그 진단의 내용은 다르다. 『김약국의 딸들』에서 『토지』로 이어지는 이 여정은 조선의 근대를 새롭게 성찰하는 기획이다. 비극의 원인을 심도 있게 조명하고, 그 위에서 또다른 역사를 상상해 보는 것이다. 그런데 박경리의 시도에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 문제를 민족주의적 방식으로 봉합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일본/조선, 제국/식민, 봉건/근대, 남성/여성 등의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모순과 균열을 통해 비극의 구조를 성찰해낸다. 바로 이 점에서 박경리 식의 고통에 대한 기억과 재현이 의미가 있다.

참고문헌

1. 자료

박경리, 『김약국의 딸들』, 나남출판사, 1993.

2. 논문

김양선, 「한국 전쟁에 대한 젠더화된 비판의식과 낭만성」, 『페미니즘 연구』 8권 2호, 한국여성연구소, 2008, 197~222쪽.

김영애, 「박경리의 <김약국의 딸들> 연구」, 『현대소설연구』 36, 한국현대소설학회, 2007, 163~178쪽.

김은경, 「『김약국의 딸들』과 영화 『김약국의 딸들』의 비교 고찰」 48권, 한

- 국비교문학회, 2009 157~182쪽.
- 서은주, 「소환되는 역사와 혁명의 기억」, 『상허학보』 30, 상허학회, 2010, 135~170쪽.
- 오혜진, 「전근대와 근대의 교차적 여성상에 관해 - 박경리의 『김약국의 딸들』, 『시장과 전장』 『토지』를 중심으로」, 『국제어문』 47, 국제어문학회, 2009, 323~352쪽.
- 유수연, 「『김약국의 딸들』에 나타난 시간과 공간의 상관성 연구」, 『국어문학』 63, 국어문학회, 2016, 257~281쪽.
- 전수자, 「박경리 소설의 비극성」, 『語文論集』 3집, 민족어문학회, 1964, 187쪽.
- 조운아, 「박경리 소설에 나타난 폭력 희생자들의 원죄의식」, 『인문학연구』 41,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1, 137~168쪽.
- 최은영, 「박경리의 『김약국의 딸들』에 나타난 장소 연구」, 『현대문학이론연구』 51권, 현대문학이론학회, 2014, 319~346쪽.
- 한만수, 「작품론 I: 자신의 운명을 찾아가기-『김약국의 딸들』을 읽고」, 『작가세계』, 세계사, 1994, 82~93쪽.
- 한영현, 「박경리 소설의 문학적 상상력과 영화적 변용 -영화 「김약국의 딸들」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33권, 한국여성문학학회, 2014, 331~359쪽.
- 한점돌, 「박경리의 『김약국의 딸들』과 샤머니즘」, 『현대문학이론연구』 41권, 2010, 5~24쪽.
- 황정현, 「『김약국의 딸들』의 설화적 성격 연구」, 『현대문학의 연구』 6, 한국문학연구학회, 1996, 361~387쪽.

Abstract

Pain and Memory: Sexuality to traverse the colonial modern

: Focusing on <the Daughters of Kim's Pharmacy>

Park, Suk-ja

<The Daughters of Kim's Pharmacy> depicts the downfall of the Kim's Pharmacy family in the midst of wild waves of the times from the late Joseon Dynasty up to the colonial ruling period. The spatial background of the novel is the port city 'Tongyoung', or Topos that has condensed the contradictions and changes of the transition period characterized by pre-modern/modern, colonialism/imperialism, and feudalism/capitalism. The social crisis that the Kim's Pharmacy family is faced with is a modern tragedy. That is, <the Daughters of Kim's Pharmacy> is a novelistic project that reflects on the modern tragedies of the late Joseon Dynasty period

This novel does not attribute the downfall to the Japanese imperialism but, rather, focuses on conflict of the values of colonialism, capitalism and modernity. Kim's Pharmacy family represses the gender in a bid to sustain their family. At the first scene of the novel, Kim Bong-nyong interprets the signifier of heterogeneity represented by 'yellow hair' as an existential crisis and makes a violent response accordingly. This pattern is repeated and varied within the text throughout the novel. Kim's refusal to accept Yongnan's love results from feudalism, patriarchal order, and pedigree-oriented prejudice. Consequently, Yongnan's sexuality

is suppressed by the dominating systems of the time, that is, pre-modernism, patriarchalism and Christianity. The first daughter, Yong-suk, is a 'husbandless widow' and 'outsider' who is forced to exert maternity only. However, Yong-suk discloses her desire toward man and seeks to promote the capital increase by jump on the male-oriented economic bandwagon at the time, which is fascinating although it is represented by *Femme Fatale*. The fourth daughter, Yong-ok, takes cares of household chores. However, the relationship between Gi-du and Yong-ok prearranged by Kim's Pharmacy reveals the true nature of a loveless and sexless family and eventually results in Yong-ok's tragic death. Yong-bin, a focalizer-character, appears as if he were the writer's alter ego, criticizing the patriarchal system and taking part in the Gwangju Student Independence Movement but Yong-bin's marriage to Hong-seop, which is also prearranged by a contract between two families ends in failure. If so, what is the cause of the tragedy demonstrated in <the Daughters of Kim's Pharmacy> The division of the Kim's Pharmacy was accelerated amid the structural changes of history and the survival of the family based on the gender repression ended up failure. The downfall of family is a tragedy in and of itself but is not fully mourned as it is the fall of the masculine modernity.

Key words : Pain, Memory, Sexuality, colonial modern, tragedy, hysteric, jouissance, patriarchy, late Joseon Dynasty, dissolution of modern.

■ 본 논문은 2018년 7월 25일에 접수되어 2018년 7월 29일부터 8월 5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2018년 8월 10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